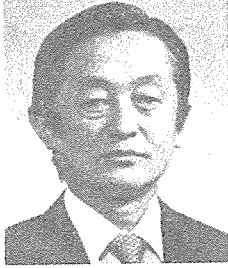


原乳의 計劃生産과 等級制 실시와 함께 乳製品의 高級化 및 多樣化 學校給食 확대, 영양적가치 재정립으로 需給安定 피해야-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김영교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농촌경제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낙농진흥법이 제정되고 낙농업이 시작된지 근 30년에 이르고 있다. 그간 낙농업은 여러차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 우유소비량은 국민 1인당 평균 40kg에 달하게 되었다.

유사이래 전통적으로 곡류위주의 식생활을 영위해온 우리들의 식탁에 우유와 유제품이 오르게된 것은 실로 식생활의 개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청소년의 체위가 향상되고 국민의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유아의 사망율이 저하되는등 영양식품인 우유와 유제품이 기여한 공로는 매우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들의 몸의 활력을 높여주고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두뇌 발달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유와 유제품을 많이 먹게 되었고 지난 10년이래 연 평균 18%의 소비신장을 지속해 왔으며 식량으로서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그런데 급년에 와서는 우유소비는 격감해서 작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오히려 감소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왜 이와같은 예상치 못했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야말로 이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현재 분유재고량은 1만2천톤을 넘어섰고 이와같은 소비추세가 지속된다면 분유체화량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고 국내 낙농업은 가장 어려운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농산물수입개방압력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만일 국내유제품시장이 개방된다면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동안 피땀흘려 육성해온 한국낙농업이 설 땅은 과연 존재할 것인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농림수산부에서는 우유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수입자유화 압력에 대한 대책과 연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종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우선 최근의 우유소비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우유수급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소비침체의 원인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1984~1988)의 원유납유량의 연평균 증가율을 18.00%이었고 소비증가율은 연 17.86%이었다. 그런데 금년 1~7월의 소비율은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면 오히려 감소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유는 계속 누적되어 분유재고량이 1만2천톤을 넘게된 것이다. 다음에 유제품별로 작년과 같은기간(1~7월)의 소비율을 비교해보면 올해에는 시유와 치즈의 소비량이 작년보다 상당히 감소했고 연유도 다소 감소하고 있다. 조제분유와 버터는 증가하고 있다. 여러 유제품중 특히 시유와 치즈의 소비량이 격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유의 수급대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뜻을 갖고 있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유소비량은 총우유소비량의 77%(1988년도)를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과거 5년간의 시유의 소비량증가는 평균 20%나 되었었다. 이와같이 계속적으로 신장하고 있던 시유가 금년에는 작년의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 소비율이 -6%나 크게 감소했다. 이와같은 현상은 그 원인이 어데 있든간에 시유의 소비는 불안정하며 주위의 여건변화에 의해서 가장 쉽게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치즈는 작년의 같은 기간(1~7월)과 대비해서 소비율은 -25%나 감소하였다. 그 원인이 소비자들의 치즈에 대한 기호도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혹은 시중에 나돌고 있는 외국산 치즈의 영향인지는 분명치가 않다. 다만 치즈는 소비성에서 앞으로 가장 잠재력이 높은 유제품으로서 이번의 치즈의 소비감소현상은 국산치즈의 품질향상과 종류의 다양화문제, 외국산 치즈의 도입이 됐을 때의 대응책 등에 대한 두가지 측면에서 좋은 교훈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우유의 연도별 수급현황을 보면 지난 79년도부터 우유재고량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 평균 재고량은 매년 약 3만5천톤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유수급의 불균형의 증후는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 생산자, 업체는 우유수급에 대한 장기

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한 예를 들면 낙농진흥법개정이나 집유일원화문제등 누구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해당사자간에 의견이 많아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금년에는 우유소비에 대한 악재가 겹쳐서 우유소비는 격감하고 분유는 계속 적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우유수급대책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나 올해에 들어와서 왜 우유소비가 격감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 축산식품은 가격탄력성이 높은 식품으로서 국민경제사정이 나빠지거나 식품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식품에 비해서 가장 먼저 소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현상은 축산식품이 주식이나 다름없는 서구에서도 그렇지만 곡류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나라에서는 그 현상은 더욱 심하다. 이와같은 소비자는 경제사정이나 식품가격상승에 민감하며 지난 봄의 원유가격 상승은 우유소비감소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아쉽게 생각되는 점은 그 당시 원유가격 인상의 불가피성, 유통과정에서의 인건비 상승요인등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좀더 자세히 홍보활동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둘째 : 최근의 우유가공업체간의 갈등은 우유소비자들에게 우유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했고 우유의 영양가치에 대해서마저 의구심을 갖게 했을 것으로 본다. 우유의 영양가치가 우수하다는 사실은 선진낙농국의 역사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우유의 영양가치와 식품적가치에 대해서 계속적인 계몽활동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우유의 살균방법에 따라 우유의 영양가치에 차이가 있다는 논쟁은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을 혼란케하여 우유소비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셋째 : 기타 우유소비의 감소요인으로 외국산 유제품의 국내시판, 학교급식 보조금의 감액등을 들 수 있다. 또 이상구박사의 강연내용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 우유수급의 대책

금년도의 우유소비의 격감현상은 국내의 여러가지 악제에 의한 일과성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1인당 우유의 소비량, 식품의 고급화와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의 기호성변화등을 감안할 때 우유소비는 점차 둔화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유의 수급을 조절하면서 생산자나 유가공업체에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낙농업의 기반을 다져가는 일은 현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유의 수급을 적절하게 조절한다는 것은 수요가 안정화되지 않은 현실에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생산량은 매년 증가일로에 있으므로 조정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수급대책을 강구하는데는 장단기대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낙농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의 하나라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면 장기대책으로는 정부는 과감하게 근본적인 개선책을 이 기회에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 낙농업의 취약점인 구조적 개선부터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하므로써 우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원유생산비를 절감시켜 낙농업의 기반을 다지면서 우유의 수급조절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지금까지는 우유의 소비촉진과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만 주력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유공급은 수요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금년의 우유소비의 침체가 일과성 현상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유소비의 둔화전망과 현재 적체되고 있는 분유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수급대책외에 단기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대책방안으로는 여러가지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계획생산이나 또는 원유의 등급제 실시방안등이 적당할 것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대책이 강구된 경우 영세낙농가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것이 수급조절을 원만히 할 수 있으나 없느냐의 관건이 될 것이다. 또 우유수급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원유의 품질향상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없이 강조

되어 왔고 어떤면에서는 많이 개선된 점도 있지만 이제는 원유의 양적문제에서 질적문제로 전환되어야 할 시기라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원유가 산정방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다음에 우유의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유가공업체는 과감하게 제품개발과 품질향상에 투자해야 한다. 최근에 와서 국민의 식생활은 급속도로 고급화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식품점에는 새로 개발된 각종식품을 포함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많은 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부추기고 있다. 한편, 식생활의 내용도 도시와 농촌이 다르고 도시에서도 생활수준에 따라서 영양요구도와 기호성에 차이가 있다. 또 연령층과 남녀간에 있어서도 기호성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유는 영양가가 높은 건강식품이다”라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인기를 끌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예를 들면 시유에 있어서도 고지방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물성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높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양적으로 저지방유가 바람직하다. 더구나 살찐 사람이나 몸매를 날씬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는 저지방유는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유(백색)는 한 종류만이 시판되고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치즈의 경우 시판치즈의 대부분은 가공치즈이며 그 영양가와 맛은 거의 같으며 격감한 것도 이런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유제품의 도입이 자유화된다면 우선적으로 치즈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혹자는 외국산 치즈가 도입된다면 그것을 가공용 원료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을 할런지 모르나 국내 낙농업과의 공존공영차원에서 생각했으면 한다. 자연치즈와 가공치즈의 종류가 좀 더 다양화 되기를 기대하고 싶다.

지금까지 우유소비를 확대하고 수요를 안정화하는데 학교급식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 학교급식은 60%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완전급식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영양가가 높은 우유를 급식시키는 것은 정부나 유가공업체로서는 대단히 값진 투자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장래를 위한 진정한 봉사이기 때문이다. 군납에 있어서도 영양가가 높은 우유나 유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장병들의 사기양양과 건강향상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므로 군납량을 늘리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유의 장단기수급대책안으로 구조적인 개선, 원유의 생산량 조절, 우유와 유제품의 품질향상과 제품개발에 의한 수급안정화, 학교급식 확대에 의한 수요안정화등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나 가장 어렵고

도 심각한 문제는 유제품수입개방 압력이라 본다. 현실적으로 쇠고기는 상당량 수입되고 있고 또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농산물 중 다음의 수입개방 압력은 유제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에대한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유제품수입이 장차 개방되느냐 안되느냐, 만일 개방이 된다면 전면개방이냐 부분개방이냐에 따라서 한국농업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유제품수입개방에 대한 정보나 대응책을 밝히고 생산자, 가공업체, 나아가서는 소비자의 협조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